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이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15년 10월 19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노동시장 개악!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온다!

박근혜 정권의 총력공세

올해 초부터 계속된 노동시장 구조개악 공세가 갈수록 더 노골적이고 심해지고 있다. 노동조합의 쇠파이프가 국민소득 3만 달러를 가로막았다는, 강성노조가 회사를 망하게 한다는 떠들어대면서 노동조합 공격에 열을 올리고 있다. 노동조합 공격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악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자료를 왜곡하거나 뺀뜰기하는 식으로 정부 정책을 옹호하려다 뒤통 역풍을 맞기도 했다.

책임은 자본이 져야한다

지금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정리해고 문제는 자본이 책임져야 하는 문제다. 아무런 설득력도 없는 ‘노조 탕’을 계속해서 두고볼 수는 없다.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500조원을 넘는다. 재벌 대기업들이 돈이 없어서 정규직 채용을 못하는 문제가 아니다. 임금피크제로 정규직 임금 조금 줄인다고 해서

기업들이 청년 신규채용에 나선다는 보장도 없고, 신규채용을 한다고 해도 비정규직으로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우리나라 경제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계속해서 침체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청년고용, 비정규직 차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포장하지만 결국 결론은 자본의 안정적인 이윤을 위한 것이다.

민중총궐기로 맞선다

올해 4월부터 민주노총이 총파업 투쟁을 통해 노동시장 개악을 막아왔다. 상반기까지 노동시장 개악을 마무리하려던 정권이 연말까지 밀려왔다. 이제 정권도 더 물러설 생각이 없다. 이제는 정말 큰 싸움만이 남았다. 민주노총도 전체 민중들과 함께 투쟁을 만들고 있다. 10월 지역별 민중대회와 11월 14일 전국 민중총궐기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1년을 싸워온 노동시장 구조개악 투쟁이다. 마지막 승리를 위해 한 발 더 앞서 투쟁하자.

애들 머릿속까지 지배하려는 정권

갑자기 교과서 문제가 난리다. 학교 떠난지 오래된 어른들은 별 관심이 없고, 정작 교과서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어른들 일에 관심이 없는 게 보통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온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가지가 있다.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누군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비판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다. 이것을 정부가 나서서 올바른 하나의 역사를 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독재적인 발상이다. 박근혜 정권이 우리 아이들의 머릿 속까지 지배하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이미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교조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직접 나서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17일 서울에서 열린 국정화 저지 범국민대회에도 청소년들은 직접 피켓을 들고 나왔다. 이들은 이렇게 외쳤다.

“국가가 우리에게 한가지 역사와 사고방식을 주입하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한국타이어 특별근로감독 요구 기자회견

* 일시 : 10월 19일(월) 10시
* 장소 : 대전노동청 앞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

* 일시 : 10월 24일(토) 15시
* 장소 : 서울역